

‘광주 세계光엑스포’ 전담 법인 출범

내년 10월 9일부터 28일간 빛의 축제 3개 분야 행사...50國 관람객 200 만명

‘2009 광주 세계광엑스포(光EX-PO)’ 개최 일자가 확정되고 행사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광엑스포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광엑스포를 전담할 법인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다.

14일 광주시 광엑스포 추진기획단에 따르면 ‘2009 광주 세계광엑스포’를 내년 10월9일부터 11월5일까지 28일간 상무시민공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주제는 ‘빛으로 여는 미래(The Future With Lights·가제)’로 설정됐다.

주요 행사는 주제 전시와 다양한 이벤트가 치러지는 ‘광엑스포’, 공연

과 체험프로그램으로 환상적인 빛의 세계를 보여줄 ‘빛의 축제’, 광기술 및 제품 전시 등 광산업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광산업전시회’ 등 3개 분야로 나눠 치러진다.

행사장은 주제영상관과 우주관, 빛의 터널, 도시관, 기업관 등 8개관으로 구성되며 국제광산업전시회와 국제학술대회 등 컨벤션 행사도 함께 치러진다. 세계 빛의 향연과 태양열 자동차 탐승체험, 야간멀티미디어쇼, 빛의 뮤지컬, 세계 빛 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세계 50개국에서 행사에 참가할 예

정이며, 시는 200만명의 관람객 유치 목표를 잡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15일 오전 엑스포 운영을 총괄하고 정부와 업무 협조 등을 맡게 될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창립총회를 첨단지구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당면직 이사장에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과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한다. 이사회 산하에는 집행기관인 사무처와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재단은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부지조성, 전시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조직운영, 재원의 조달과 집행 등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엑스포 관련 문화예술행사 등을 추진하고 엑스포 홍보, 부대사업 시

행,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 등도 담당한다.

시는 재단법인 설립과 함께 올 상반기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행사장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는 당초 1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진태 광엑스포추진기획단 사무총장은 “광산업 도시로서의 역량과 비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산업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2009 광주 세계광엑스포’는 광주시가 지난 2000년부터 펼쳐온 광산업육성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광산업의 새로운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국제 이벤트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건강관리협 광주·전남지부 원폭피해자 의료세미나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부 사무실에서 원폭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원폭피해자 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적십자사와 나가사키의료국제협력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나가사키 원폭 피해 내용과 피폭자에 대한 원호 시책 등을 소개했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호남지역에서 원폭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효과적으로 피폭자를 진료하고 원폭피해자의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정율성 영화 ‘더 히스토리’ 제작 동신대, 영화 제작사와 산학협약



동신대는 14일 ‘칸 인터내셔널 홍콩’과 독립영화 ‘더히스토리’ 제작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동신대 차두욱 교수, 장성주 산학협력담당, 김시우 칸 인터내셔널 홍콩 대표. <동신대 제공>

동신대학교는 14일 영화 제작사 ‘칸 인터내셔널 홍콩’과 광주 출신 중국인 민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 ‘더히스토리’ 제작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동신대 측은 방송연예학과에서 사용하는 실습용 촬영 기자재 등을 영화 제작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제공 등도 약속했다. 동신대 차두욱 방송연예학과 교수가 기획을 지원하고, 98학번 졸업생 유진경씨가 편집감독으로 참여한다.

정율성 선생의 향일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제작되는 ‘더히스토리’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중 광주시 광산구 일대에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소외계층 어린이 맞춤형 문화교육

광주 북구 ‘문화 공부방’ 문 열어 만화·댄스·음식 만들기 가르쳐

광주시 북구가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문화공부방’을 개설,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문화공부방은 지역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각 프로그램을 맡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이철원 변호사의 놀며 법을 배우는 솔로몬 ▲조선대 만화학과 학생들의 만화 애니메이션 교실 ▲광주여대 무용학과 학생들의 댄스교실 등이 있다.

향토 음식박물관과 연계한 ▲전통음식 만들기 ▲예절교육 ▲인형극,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흥3동 진희 공부방, 우산동 문흥골·모해 공부방 소속 초등학생 60여명이며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20주 동안 진행된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오월 문화관을 활성화하고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참여 학생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교육을 접하고 정서함양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4일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센터 오월문화관에 개설된 ‘문화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60여명이 강사로부터 장구 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위정림기자 jnwi@kwangju.co.kr

5·18재단 ‘오월시민기자’ 양성 교육

5·18기념재단이 5·18 행사 취재와 관련 기사 발굴을 위해 ‘오월시민기자’를 양성한다.

5·18기념재단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실을 담기 위해 노력했던 취재 기자들의 정신을 이어갈 시민 사진기자 양성을 위한 기자학교를 오는 3월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측은 다음달 4일 광주 서구 상무동 5·18기념재단에서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6월19일까지 주 2회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내용은 촬영 기본기, 기사작성, 편집 요령과 현장 실습 등으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오월시민기자증’이 발급되며 재단이 발간하는 ‘주먹밥’을 통해 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5·18 관련 행사를 참관하고 취재할 수 있게 되며 11월에는 발표회를 열어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봄 맞이
본사지원
Big Sale